

노점상 지원금 50만원, 받을까 말까...

중기부 지난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제주지역 신청 '0건'... "사업자 등록시 세금 부담"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노점상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제주에선 현재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노점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따르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 걱정에 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어서다.

14일 중소기업지원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 상인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지난달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관할 행정시에 신청해 대상자 심사 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소외됐던 노점상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만, 현장 반응은 "받고 싶지만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13일까지 노점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 수는 단 한건도 없다. 아직 홍보가 덜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사업자 등

록 이후 뒤따르는 각종 세금 등이 두려워 노점상들이 선불리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오일시장에서 소규모로 채소를 판매하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을 벌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에게 사업자 등록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장사가 잘 안돼 지원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 후 내야 될 세금

과 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장사하는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 상인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등을 찾아 노점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를 통해 노점상들의 사업자 등록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식위해 제주찾은 장다리물떼새 14일 철새인 장다리물떼새 수심마리가 이동중 휴식을 위해 중간 기착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강변에 쉬었다.

방호벽 위로 총총... 무단횡단 예사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 무질서 극심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있는 가운데 사진촬영 명소로 유명한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가 무질서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오전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관광객들이 여럿 보였다. 이들은 저마다 바다를 배경으로 방호벽에 걸터 앉거나 위에 올라서서 사진을 찍었다. 방호벽에 올라선 관광객들은 점프를 하거나 넘어질 것 같은 아찔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질 뻔하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도 목격됐다. 어린 아이들은 방호벽 위로 뛰어 다니기도 했다.

변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보이기도 한다.

도두동 주민 A씨는 "봄·여름철만 되면 이런 일은 일상이다. 차를 타고 귀가 중 관광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가슴 졸인 적이 한두번 아니다"며 "즐거움 마음인 것은 이해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치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해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 등 계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타지에서 늘어난 관광객이라 예외사항이 존재한다"며 "올 하반기 공공일 자리를 요청해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관리 및 상시지도에 나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소위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방호벽 반대편 도로에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무단횡단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일부 관광객이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핸들을 급격히 틀어 곡예운전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시 무단횡단해 카메라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 무지개해안도로는 주말이나 휴일 많은 인파가 몰릴때면 불법 주·정차로 주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224만년전 화산분출로 생성"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연구

신비의 섬 이어도가 224만년 전 화산 분출로 생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져 있으며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해 있다

연구진은 조사선(바다로 2호)을 이용해 이어도 정상부(해수면 아래 4.6m)에서 암석을 채취·분석하고 주변 해저를 탐사했다. 연구진은 방사성 동위원소(Ar-Ar)의 반감기를 이용, 이어도 정상부에서 채취한 암석(응회암) 속 초생암편의 절대연령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이어도의 나이가 약 224만년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어도가 제주도 화산(180만년)보다 200만 년 전에 형성됐고, 독도(260~230만년전)보다는 나중에 생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어도에서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남부 해역 화산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질학적 단서라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진은 지난해 전남대학교 장태수 교수팀과 함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과제 중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역 해저지질 특성연구(2020)' 과제를 추진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대표기자

"목장조합은 세금감면 대상 아니"

목장조합은 '마을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이라며 비과세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목장조합 또는 목장조합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재산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며 "목장조합은 공공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시리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5일 목장조합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약 1억4771만원, 지방교육세 2954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목장조합은 보유 토지 가운데 유채꽃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하루만에 4명 코로나 신규 확진

확진자 다녀간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폐쇄

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제주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특히 14일 해양경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확진자가 방문한 제주대학교병원과 근무지인 파출소가 긴급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667번 환자는 서귀포해양경찰서 화학과소속 소속 경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67번은 지난 13일부터 감기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며 14일 오후 5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선 지난 13일 2명(664·665번)에 이어 14일 2명(666·667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67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측은 이날 응급실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응급실은 15일 오전까지 폐쇄된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664번은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방문 후 11일 입도했으며,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이튿날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해경도 화학과소속을 폐쇄 조치하고 방역·소독에 나섰다. 또 전 직원 3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665번은 영국에 약 열흘간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독일을 경유해 지난 달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인인 조 사됐다. 이후 지난 1일부터 제주로 와 격리를 진행했다. 당초 진행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확진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666번은 해외 입국자로, 지난 2일부터 해외에 머무르다 지난 13일 제주에 입도한 후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접할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강다혜·강민성기자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양돈농협

프리미엄 제주 돼지고기

대한민국 1% 제주도니
그 맛에 100%를 더하다!

청정 제주에서 자라는 대한민국 1% 돼지고기, 제주도니!
신선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대한민국 100% 맛을 책임집니다.

제주도니 JEJU DON